

출소자의 아동기 가족구조와 현재 가족 연결 여부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 및 심리기능의 차이

양 모 현

박 효 은

이 동 훈[†]

박사과정생

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생

교수

본 연구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양친의 양육 여부와 현재 가족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 지원을 받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지를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여 2차 분석하였으며, 주관적 가족 경험에 대한 분석은 281명, 심리기능에 대한 분석은 48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주관적 가족 경험은 가족의 지지,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으로 측정하였다. 심리기능은 공감 능력, 자아 탄력성, 자활 의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과 연결되고 양친에게 양육된 출소자 집단은 양친과 분리되어 양육되었거나 현재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 집단에 비해 공감능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자아탄력성, 자활 의지 등의 심리적 기능이 더 높고, 아동기 학대 경험이 적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컸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성장환경과 가족과의 연결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지각 외에도 다양한 심리적 자원 및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출소자, 아동기 가족구조, 가족 연결, 다변량분산분석, 심리기능, 주관적 가족 경험

[†] 교신저자 :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호암관 51112호, Tel: 02-760-0558, E-mail: dhlawrence05@gmail.com



Copyright ©2022,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출소자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자로서 형기가 종료되거나 가석방, 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를 의미한다(법무부, 2018; 김경아, 이창배, 공정식, 2020). 출소자는 형벌이 한 번 이상 확정되면 전과가 남는다는 의미인 ‘전과자’와는 다른 의미이다(강수운, 이동훈, 2019; 김경아 외, 2020). 출소는 그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나와 사회로 돌아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출소자가 사회에 돌아와 다시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이는 재범의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사회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된다(최영신, 2009;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2017).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출소자가 다시 범죄를 일으켜 재범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와야 한다(이동훈, 방기연, 2014). 더불어 출소자의 사회재통합을 위해 재범을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김기환, 2019).

출소자들의 출소 이후에 안정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다수의 출소자는 낙인이나 낮은 학력, 사회적응력 부족, 사회지원의 부족 등으로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토로한다(강호성, 2018; 공정식, 권준성, 2019). 출소자들은 출소 후 경제적 불안정, 가정 불안정, 관계 불안정, 심리 불안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출소자들은 출소 후 자신감 상실, 자포자기, 대인관계 회피, 감정통제의 어려움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하고, 낙인, 숙식 문제, 각종 부채, 취업 기회의 차별 등의 현실적 문제에 부딪힌다(이윤호, 윤옥경, 2006; 남재성, 2008). 특히 출소자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했고 미래 범죄행위의 위험성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와 낙인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전과 사실이 탄로 나거나 취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잃게 되며, 이는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정진수 외, 2011).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고용, 거주지, 의료 및 복지지원, 복귀할 가정의 존재, 가족과의 관계 등이 있다. 이 중 가정의 유무는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출소자는 출소 이후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은 출소자가 되돌아갈 가장 작은 사회이므로 가족과의 관계는 출소자가 사회 적응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류석진 외, 2016).

출소자의 가족 경험은 과거 원가족과의 관계와 현재 가족과의 관계로 나뉘어 볼 수 있다. 과거의 가족 관계는 출소자가 어릴 때 누구에게 양육되었는지, 즉 양친, 편부모, 조부모, 기관에서 양육되었는지와 같은 양육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 구조는 출소자의 물리적 및 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 특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양친가족에 비해 한부모가족의 청소년들이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고하였다(이미리, 박주희, 정현숙, 2015). 한부모가족은 양친가족과 달리 가족구조의 불안정성에 놓여왔을 가능성이 크고 부모로서의 역할부담이 스트레스로 이어져 청소년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출소자의

어린 시절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모 양육의 결함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Elliott, Ageton, & Huizinga, 1985).

출소자의 현재 가족 관계는 현재 연락을 나누거나 동거하는 가족이 존재하는지를 나타낸다. 출소자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인 배우자와 가족 또는 친구는 경제적, 심리적 지지자로서 그들을 위기 상황에서 보호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한순옥, 2014; 김경아 외 2020). 가족과 유대가 강한 출소자는 재범률이 낮고, 안정적인 재사회화를 이루는 반면(조희원, 도광조, 2014; Morani, Wikoff, Linhorst, & Bratton, 2011), 가족과의 단절은 출소자가 출소 후 돌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낮추고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범죄를 일으키는 위험이 생기게 된다(이동훈 외, 2016). 이처럼 출소자의 과거와 현재의 가족 경험은 모두 출소자의 현재 행동, 정서,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과거와 현재의 가족 경험을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과거 양육 구조, 즉 출소자가 양친에게 양육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가족 경험인 가족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가족모델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족 모델은 ‘현재 가족과 단절되어 있고 아동기에 양친과 분리되었던 집단’, ‘현재 가족과 단절되어 있고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된 집단’, ‘현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아동기에 양친과 분리되었던 집단’, ‘현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된 집단’의 4개 하위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과거 및 현재 가족과의 연결 경험은 출소자

가 가족에 대해 지각하는 주관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관적 가족 경험은 개인이 자신의 가족과 경험한 것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Sato et al., 2021). 아동기 학대에 대한 기억, 부모에 대한 애착, 가족의 지지 등과 같은 가족 관계에서 경험한 일에 대한 출소자의 지각은 출소자의 주관적 가족 경험이 될 수 있다.

아동기에 편부모 양육이나 타인에게 양육되는 등 가정 내에서 결손이 생기게 되면 양육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커져 양친이 양육하는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대 및 방임 경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이은경, 2004). 아동기에 학대 외상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기 이후의 삶에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학대 경험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hapman et al., 2004; Grella, Stein & Greenwell., 2005; Baglivio, Wolff, Piquero, Epps, 2015; 김미현, 이동훈, 강수운, 2021). 아동기 학대 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삶의 부적응적 행동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성장기의 폭력피해 외상경험은 폭력 범죄율을 높이며, 이러한 경험은 비행과 재범 확률을 증가시킨다(Annerbäck, Sahlqvist, Svedin, Wingren, Gustafsson, 2012; Baglivio et al., 2016; 김미현 외, 2021; 장희숙, 2010). 따라서 아동기 학대 경험은 아동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어 현재 가족과의 관계와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 부모와 처음 맺게 되는 애착은 인간 성장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린 시절 자녀가 부모와 맺는 신뢰관계를 토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안정되는 기분과 위안을 받는 것을 말한다(윤기

원, 이동훈, 2017). 부모에게 양육되지 않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반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양육되면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아져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서지호, 장혜인, 2021). 출소자의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착이 약할수록 수감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악화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박지언, 이은희, 2008; Lyn & Burton, 2004; Marshall, 1989).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아동기 양육 환경을 짐작케 하고 현재 가족과의 연결을 예측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는 개인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핵심 요소이며, 가족으로부터 얻는 지지는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Barker, Herdt & DeVries, 2006; Alexis & Brandi, 2017). 출소자가 출소 후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면 주거, 구직 등의 도움 이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러한 지지 경험이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Trovillion, 1998; 현문정, 공정식, 김정현, 2019). 더 나아가 가족과 같이 자신이 친밀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안정적인 정서 교류를 나누는 것은 앞서 언급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Laible et al., 2004; 현문정 외, 2019).

출소자의 과거 및 현재의 가족 연결 경험은 출소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다양한 심리적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정서적 교감을 돕는 공감 능력,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 좌절감에 빠지지 않고 유연하게 회복하는 탄력성,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살

고자 하는 책임과 의지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낮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은 출소자의 사회복귀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공감은 자신과 타인을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고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이 그 당시 느끼는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다(Baron-Cohen & Wheelwright, 2004; Davis, 1983). 공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낮아지면 반사회적 행동은 물론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Miller & Eisenberg, 1988; Jolliffe & Farrington, 2004). 공감 능력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발달할 수 있는데, Yoo, Feng, Day 등(2013)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공감 능력은 가정 내에서 발달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자 범죄를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로 분류할 수 있다(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이러한 4가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대처방법이 통제적인지, 회피적인지에 따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이며,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이다(김현정 외, 2014).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추구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를 청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김정희, 1987; Skinner & Zimmer-Gembeck, 2007; 서현정, 정하영, 이덕희, 이동훈, 2020). 출소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재범집단이 초범집단보다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모두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면 재범의도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대처자원이 부족할수록 재범 비율이 높았다(정하영, 김시형, 권옥현, 이동훈, 2020). 또한 가족의 강점과 그들이 주는 자원은 스트레스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nnett & De Frain, 1985; Karpel, 1986; Lindsey & Claire, 2020). 이는 출소자에게 가족과의 연결이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는 유연성과 충동을 통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증가시켜 부정적 반응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Cicchetti, Toth & Lynch, 1995). 자아탄력성은 범죄행동과 재범, 사회적응과도 연관이 있다(Efta-Breitbach & Freeman, 2004; Pearl, Ashcraft & Geis, 2009; 송하성, 2017; 조용철, 2008; 김미현 외, 2021). 출소자의 자아탄력성과 수감횟수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수감횟수가 적어졌는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출소자가 범죄의 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범죄에 쉽게 빠지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범죄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Camp & Thyer, 1993; Doll & Lyon, 1998; Smith &

Monastersky, 1986). 자아탄력성과 가족 관계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 연구는 많지 않은데,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2012)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태도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중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인 양육 태도는 낮은 자아탄력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소자의 가족 연결 여부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활의지는 외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심리적 능력으로 외부의 사회 및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말한다(박경숙, 박능후, 2001; 이태혁, 김승아, 노혜진, 2007; 강수운 외, 2019). 출소자의 자활의지는 사회에 다시 적응하여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한 노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족이 주는 사회적 지지는 주요 요인이며,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책임의 조직망 속의 소속감을 통해 자활의지의 효과를 키운다(송인한, 박장호, 김리자, 2012). 강수운 외(2019)의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 얻는 지지가 출소자의 자활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원가족 및 현재 가족과의 관계와 자활 의지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관계와 자활의지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앞선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출소자의 과거 및 현재의 가족과의 연결 경험은 출소자의 수감 특성이나 범죄 행동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얻는 지지 자원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필요한 여러 심리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소자의 과거와 현재의 가족 경험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족 관계

에 대한 지각과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출소자의 과거 가족 경험인 아동기 양육 구조와 현재 가족 경험인 가족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가족모델을 설정하고 가족모델별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출소자의 아동기 가족구조와 현재 가족 연결 여부에 따른 집단별 주관적 가족 경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출소자의 아동기 가족구조와 현재 가족 연결 여부에 따른 집단별 심리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회 망복원센터 용역연구 ‘출소자 가정 복원을 위한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방안 연구’(2014~2015) 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2차 활용(secondary analysis)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출소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적 연구 절차에 관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각 지부 숙식지원 담당자의 협조 하에 서울, 경기, 경기북부, 인천, 강원,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 경남 지역 등 총 9개의 지부로부터 숙식 지원을 받는 출소자 5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설문지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이며, 공문과 설문지에 비밀보장과 연구

윤리 준수사항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 간 상관을 고려하여 주관적 가족 경험에 대한 통계분석과 심리 기능에 대한 통계분석을 따로 진행하였다. 각 분석에 사용된 변인의 결측치를 제거하여 총 510명의 자료 중 분석 1(주관적 가족 경험)에서 281명, 분석 2(심리기능)에서 487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분석 1에 사용된 자료의 성별 분포는 남자 279명(99.3%), 여자 1명(0.4%), 결측 1명(0.4%)이었다. 나이 분포는 20대 38명(13.5%), 30대 52명(18.5%), 40대 91명(32.4%), 50대 66명(23.5%), 60대 이상 31명(11.1%), 결측 3명(1.1%)이었다. 학력 분포는 초졸 이하 32명(11.4%), 중졸 이하 63명(22.4%), 고졸 이하 132명(47.0%), 대졸 이하 50명(17.8%), 대학원 이상 4명(1.4%)이었다.

분석 2에 사용된 자료의 성별 분포는 남자 476명(97.7%), 여자 8명(1.6%), 결측 3명(0.6%)이었다. 나이 분포는 10대 7명(1.4%), 20대 64명(13.1%), 30대 96명(19.7%), 40대 149명(30.6%), 50대 117명(24.0%), 60대 이상 48명(9.8%), 결측 6명(1.2%)이었다. 학력 분포는 초졸 이하 52명(10.7%), 중졸 이하 117명(24.1%), 고졸 이하 229명(47.0%), 대졸 이하 81명(16.6%), 대학원 이상 5명(1.0%), 결측 3명(0.6%)이었다.

측정 도구

아동기 양육 유형 및 현재 가족 연락

아동기 양육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신은 어린 시절 누구와 생활했습니까?’라는 질문에 7개 선택지(①친부모 두 분과 함께 생활, ②아버지와만 생활, ③어머니와만 생활, ④할아버지나 할머니와 생활, ⑤친척집에서

생활, ⑥고아원과 같은 시설에 생활, ⑦기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선택지 중 ‘친부모 두 분과 함께 생활’을 아동기 양친 양육으로 분류하였고, 그 외의 선택지를 모두 아동기 분리 양육으로 분류하여 재코딩하였다.

현재 가족과의 연락 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재 가족과의 연락 상태를 묻는 4지선다형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가족 없음’ 또는 ‘가족이 있지만 연락두절’인 경우 현재 가족과 단절된 것으로 분류하였고, ‘가족과 연락이 되나 함께 지내지 않음’과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음’을 현재 가족과 연결된 것으로 분류하여 재코딩하였다.

아동기 양친 양육 여부 및 현재 가족과의 연결 여부에 따라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양육’,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가족 모델을 설정하였다.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1998)가 제작한 아동기 학대외상 척도(Childhood Traumatic Questionnaire: CTQ)를 이유경(2006)이 번안하고 수정한 것을 정희진(200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학대 외상 척도는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신체적 학대, 신체적 방임, 성적 학대와 관련하여 만 18세 이전에 가족 내에서 겪은 경험을 Likert식 4점 척도(0: 전혀 없었다, 3: 자주 있었다)로 답하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향의 적합성을 고려해 5개 하위 요인 중 성적 학대를 제외한 4개 요인 2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기 학대 경험이 심함을 뜻

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정서적 학대 .819, 정서적 방임 .940, 신체적 학대 .929, 신체적 방임 .706이었다.

부모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에 기초하여 Raja, McGee와 Stanton(1992)이 개정한 IPPA-개정본(IPPA-R)을 김수희(2009)가 번안한 것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애착 척도는 애착에 관한 12개의 문항을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해 Likert식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문항의 예로는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힘든 점에 대해 말씀드렸었다’,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아버지 애착 .876, 어머니 애착 .883이었다.

가족지지

Zimet, Dahlem, Zimet와 Farley(1988)가 개발한 사회적지지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의 3개 하위 요인 중 가족의 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고자 진정으로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정말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7이었다.

공감능력

Baron-Cohen과 Wheelwright(2004)이 개발한 공감지수(Empathy Quotient : EQ)척도를 허재홍, 이찬중(2010)이 번안한 K-EQ(Korean Empathy Quotient)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인지공감, 정서공감, 사회적기술을 측정하는 17개 문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매우 아니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고 총점이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841이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오수성과 신현균(2008)이 번안하고 김현정 외(2014)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정서 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 등 4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요인별 5개 문항씩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제 중심적 대처방식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개인, 환경관련 요인 자체를 변화·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대처방식이고,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은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의하여 대처하는 방식을 말하며,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적 위협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는 대처방식을 의미하고,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Likert 식 4점 척도(0=사용하지 않는다, 3=아주 많이 사용한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별 척도가 높을수록 해당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문제중심적 대처 .854,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866, 정서 완화적 대처 .677, 소망적 사고 대처 .738이었다.

자아탄력성

Klohn(1996)이 개발하고 박현진(1996)이 번안하여 김인경(2012)이 수정한 자기보고식 자아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 의도에 맞게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다. 본 자아탄력성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을 측정하는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26이었다.

자활의지

자활의지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위해 근로 활동에 참여하려는 심리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ossholder(1980)가 고안한 자활의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5점 Likert 척도('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된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지금 하는 일이 내 능력에 더 맞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등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계수는 .939이었다.

자료 분석

가설 검증을 위해 IBM SPSS 21.0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의 특성 및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모델 집단별 주관적 가족 경험 및 심리기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 주관적 가족 경험의 7개 변수와 심리기능의 7개 변수 간 상관이 낮아서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을 나누어서 별도로 분석하였다. 다변량분산분석(MANOVA)에서는 종속변수 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든 종속변수의 점수를 Z 변환하여 표준화하였다. Levene 검정을 통해 각 종속변수의 분산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사후비교를 위해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는 변수는 Scheffé 검정을 하였고, 등분산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수는 Games-Howell 검정을 하였다.

결 과

가족모델별 출소자 빈도

아동기 양친의 양육 여부와 현재 가족과의 연락 여부에 따라 4개의 가족모델을 구분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가족모델별 출소자의 빈도를 살펴보면, 현재 가족과 연락하고 양친에게 양육된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 집

단에 속하는 출소자가 가장 많고(41.7~42.7%),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 집단(16.0~20.7%)과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21.0~22.2%),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었지만 현재 가족과 단절된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양육’ 집단(15.4~20.3%)의 출소자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가족모델별 수감특성

아동기 양육 유형과 현재 가족 연결 여부로 구분한 가족모델의 4개 유형 집단의 수감특성을 표 2에 제시하였다. 최초수감연령과 관련하여,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집단에서 10대에 최초로 수감된 비율은 28.7~31.1%이고 양친에게 양육된 집단의 10대 최초수감 비율은 10.5~12.5%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두 집단은 최초 수감연령이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고(10대+20대 60.4~71.2%), 양친에게 양육되었으나 현재 가족과 단절된 집단은 20대와 30대에 집중된 반면(20대+30대 61.3~66.7%), 양친에게 양육되고 현재도 가족과 연결된 집단은 10대(12.3~12.5%)가 가장 적고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각 연령대별 16.7~23.6%).

수감기간과 관련하여,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두 집단은 2~5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표 1. 가족모델별 출소자 빈도

| 현재가족연결여부 양친 양육 여부 | 분석 1(281명) | | 분석 2(487명) | |
|----------------------|------------|------------|------------|------------|
| | 연결 N(%) | 단절 N(%) | 연결 N(%) | 단절 N(%) |
| 양육 | 120(42.7) | 57(20.3) | 203(41.7) | 75(15.4) |
| 분리 | 45(16.0) | 59(21.0) | 101(20.7) | 108(22.2) |

표 2. 가족모델별 수감특성

| | | 분석 1 | | | | 분석 2 | | | |
|------------------|----------|-------------------------------|-------------------------------|-------------------------------|-------------------------------|-------------------------------|-------------------------------|-------------------------------|-------------------------------|
| | | 현재가족단절 아동기 양친분리 N(%) | 현재가족단절 아동기 양친양육 N(%) | 현재가족연결 아동기 양친분리 N(%) | 현재가족연결 아동기 양친양육 N(%) | 현재가족단절 아동기 양친분리 N(%) | 현재가족단절 아동기 양친양육 N(%) | 현재가족연결 아동기 양친분리 N(%) | 현재가족연결 아동기 양친양육 N(%) |
| | | | | | | | | | |
| | | | | | | | | | |
| 최초 수감 연령 | 10~19세 | 18(30.5) | 6(10.5) | 14(31.1) | 15(12.5) | 31(28.7) | 9(12.0) | 31(30.7) | 25(12.3) |
| | 20~29세 | 24(40.7) | 22(38.6) | 15(33.3) | 27(22.5) | 45(41.7) | 28(37.3) | 31(30.7) | 48(23.6) |
| | 30~39세 | 10(16.9) | 16(28.1) | 9(20.0) | 20(16.7) | 21(19.4) | 18(24.0) | 17(16.8) | 41(20.2) |
| | 40~49세 | 4(6.8) | 6(10.5) | 3(6.7) | 26(21.7) | 6(5.6) | 9(12.0) | 11(10.9) | 39(19.2) |
| | 50대 이상 | 3(5.1) | 7(12.3) | 4(8.9) | 25(20.8) | 5(4.7) | 11(14.7) | 6(6.0) | 40(19.7) |
| | 결측 | - | - | - | 7(5.8) | - | - | 5(5.0) | 10(4.9) |
| 수감 기간 | 1년 미만 | 11(18.6) | 15(26.3) | 5(11.1) | 34(28.3) | 19(17.6) | 18(24.0) | 18(17.8) | 62(30.5) |
| | 1~2년 미만 | 10(16.9) | 12(21.1) | 12(26.7) | 23(19.2) | 18(16.7) | 17(22.7) | 19(18.8) | 42(20.7) |
| | 2~5년 미만 | 16(27.1) | 12(21.1) | 16(35.6) | 29(24.2) | 29(26.9) | 17(22.7) | 32(31.7) | 43(21.2) |
| | 5~10년 미만 | 12(20.3) | 10(17.5) | 9(20.0) | 16(13.3) | 23(21.3) | 12(16.0) | 18(17.8) | 26(12.8) |
| | 10년 이상 | 10(16.9) | 7(12.3) | 3(6.7) | 13(10.8) | 18(16.7) | 10(13.3) | 7(6.9) | 22(10.8) |
| | 결측 | - | 1(1.8) | - | 5(4.2) | 1(0.9) | 1(1.3) | 7(6.9) | 8(3.9) |
| 수감 횟수 | 1회 | 9(15.3) | 10(17.5) | 12(26.7) | 43(35.8) | 15(13.9) | 15(20.0) | 28(27.7) | 72(35.5) |
| | 2회 | 12(20.3) | 9(15.8) | 11(24.4) | 30(25.0) | 21(19.4) | 12(16.0) | 18(17.8) | 47(23.2) |
| | 3회 | 17(28.8) | 15(26.3) | 8(17.8) | 17(15.2) | 28(25.9) | 18(24.0) | 19(18.8) | 28(13.8) |
| | 4회 | 7(11.9) | 8(14.0) | 4(8.9) | 9(7.5) | 14(13.0) | 12(16.0) | 12(11.9) | 16(7.9) |
| | 5회 이상 | 14(23.7) | 13(22.8) | 10(22.2) | 13(10.9) | 30(27.7) | 16(21.3) | 19(18.8) | 28(13.8) |
| | 결측 | - | 2(3.5) | - | 8(6.7) | - | 2(2.7) | 5(5.0) | 12(5.9) |
| 범 죄 유 형 | 강력범죄 | 23(39.0) | 22(38.6) | 20(44.4) | 41(34.2) | 42(38.9) | 27(36.0) | 35(34.7) | 64(31.5) |
| | 재산범죄 | 29(49.2) | 29(50.9) | 18(40.0) | 53(44.2) | 53(49.1) | 37(49.3) | 48(47.5) | 97(47.8) |
| | 기타범죄 | 7(11.9) | 5(8.8) | 7(15.6) | 21(17.5) | 12(11.1) | 10(13.3) | 15(14.9) | 35(17.2) |
| | 결측 | - | 1(1.8) | - | 5(4.2) | 1(0.9) | 1(1.3) | 3(3.0) | 7(3.4) |
| 전체 | | 59(100.0) | 57(100.0) | 45(100.0) | 120(100.0) | 108(100.0) | 75(100.0) | 101(100.0) | 203(100.0) |

높고(26.9~35.6%),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6.7~16.9%). 양친에게 양육된 두 집단은 1년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고(24.0~30.5%), 10년 이상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10.8~13.3%).

수감횟수와 관련하여, 현재 가족과 단절된 두 집단은 3회 수감된 비율이 가장 많았고

(24.0~28.8%, 분석 2의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은 5회 이상 수감이 많음), 현재 가족과 연결된 두 집단은 1회 즉, 초범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26.7~35.8%). 5회 이상 수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았거나 양육되었더라도 현재 가족과

단절된 집단 중 18.8~27.7%가 5회 이상 수감되었으나, 양친에게 양육되고 현재 가족과 연락하는 집단은 10.9~13.8%로 더 낮았다.

범죄유형과 관련하여, 집단과 관계없이 강력범죄보다 재산범죄가 더 많았고(강력범죄 31.5~44.4%; 재산범죄 40.0~50.9%), 기타범죄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8.8~17.5%).

변수 간 상관관계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가족 경험의 7개 종속변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아동기 학대 외상 경험의 4개 하위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 분석 1_주관적 가족 경험(N=281) | | | | | | | |
|-----------------------|-------------|---------------|---------------|---------------|---------------|--------------|-------------|
| | 1. 정서학대 | 2. 신체학대 | 3. 정서방임 | 4. 신체방임 | 5. 가족지지 | 6. 부애착 | 7. 모애착 |
| 2 | .693** | | | | | | |
| 3 | .205** | .249** | | | | | |
| 4 | .541** | .572** | .445** | | | | |
| 5 | -.253** | -.283** | -.567** | -.351** | | | |
| 6 | -.404** | -.491** | -.647** | -.547** | .561** | | |
| 7 | -.353** | -.378** | -.596** | -.527** | .573** | .747** | |
| M(SD) | 4.10(3.45) | 3.65(4.21) | 6.92(4.79) | 4.34(3.42) | 12.56(3.86) | 32.14(6.80) | 33.63(6.83) |
| 왜도 | 0.710 | 1.102 | 0.163 | 0.800 | -0.333 | -0.111 | -0.095 |
| 첨도 | -0.243 | 0.182 | -1.048 | 0.197 | -0.148 | 0.005 | -0.289 |
| 분석 2_심리기능(N=487) | | | | | | | |
| | 1. 공감능력 | 2. 스트레스 대처_문제 | 3. 스트레스 대처_정서 | 4. 스트레스 대처_소망 | 5. 스트레스 대처_사회 | 6. 자아 탄력성 | 7. 자활의지 |
| 2 | .427** | | | | | | |
| 3 | .104* | .303** | | | | | |
| 4 | .387** | .494** | .491** | | | | |
| 5 | .342** | .623** | .289** | .400** | | | |
| 6 | .271** | .305** | -.075 | .002 | .248** | | |
| 7 | .409** | .494** | .126** | .337** | .331** | .229** | |
| M(SD) | 56.00(7.47) | 8.77(3.15) | 7.10(2.65) | 8.41(2.86) | 8.05(3.51) | 93.32(16.31) | 40.12(7.88) |
| 왜도 | 0.265 | -0.243 | -0.148 | -0.282 | -0.197 | 0.079 | -0.453 |
| 첨도 | 0.372 | 0.099 | 0.385 | 0.357 | -0.308 | 0.601 | 0.694 |

* $p < .05$, ** $p < .01$

있었고, 각 하위 변인은 가족지지, 부애착, 모애착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족지지, 부애착, 모애착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심리기능의 7개 종속변수 중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정서 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는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외의 모든 변수 간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각 변수의 왜도는 -.453~1.102였고, 첨도는 -.308~.694였다.

가족모델별 주관적 가족 경험 차이

아동기 양육 유형과 현재 가족 연결 여부로 구분한 가족모델의 4개 유형 집단 간에 주관적 가족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표 4와 그림 1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변량 검정 결과, 주관적 가족 경험에서 가족 모델의 4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Wilks' λ = 0.728, $F(21, 779) = 4.334$, $p < .001$, 부분 $\eta^2 = .100$]. 각 종속변수별 효과 검정 결과, 가족의 지지, 부모 애착, 아동기 학대 외상의 4개 하위 요인인 정서 학대, 신체 학대, 정서 방임, 신체 방임 등 7개

종속변수는 모두 일변량 효과가 유의하였다 [가족지지 $F(3, 277) = 16.702$, $p < .001$; 부애착 $F(3, 277) = 21.421$, $p < .001$; 모애착 $F(3, 277) = 21.648$, $p < .001$; 정서 학대 $F(3, 277) = 5.114$, $p < .01$; 신체 학대 $F(3, 277) = 9.803$, $p < .001$; 정서 방임 $F(3, 277) = 15.806$, $p < .001$; 신체 방임 $F(3, 277) = 10.978$, $p < .001$].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현재 가족과 연락하고 양친에게 양육된 '현재 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 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가족의 지지가 많고, 양친에 대한 애착이 크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적었다고 지각하였고,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와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보다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적었다고 지각하였다. 현재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양친에게 양육된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양육' 집단은 현재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아동기에도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족모델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의 다변량분석 결과

| 종속변수 | Wilks' | SS | df | MS | F |
|------|--------|--------|----|--------|-----------|
| 가족지지 | 0.728 | 41.145 | 3 | 13.715 | 16.702*** |
| 부애착 | | 52.554 | 3 | 17.518 | 21.421*** |
| 모애착 | | 54.418 | 3 | 18.139 | 21.648*** |
| 정서학대 | | 14.369 | 3 | 4.790 | 5.114** |
| 신체학대 | | 26.713 | 3 | 8.904 | 9.803*** |
| 정서방임 | | 41.933 | 3 | 13.978 | 15.806*** |
| 신체방임 | | 31.024 | 3 | 10.341 | 10.978*** |

** $p < .01$, *** $p < .001$

표 5. 가족모델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의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결과(N=281)

| 종속변수 | A.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N=59 | B.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양육 N=57 | C.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 N=45 | D.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 N=120 | 사후검증 |
|------|------------------------------|------------------------------|------------------------------|-------------------------------|-----------|
| | M(SD) | M(SD) | M(SD) | M(SD) | |
| | | | | | |
| 가족지지 | -0.44(1.14) | -0.17(0.88) | -0.03(1.06) | 0.50(0.71) | D>A,B,C |
| 부애착 | -0.60(0.95) | -0.07(0.86) | -0.33(1.17) | 0.47(0.78) | D>B,C>A,C |
| 모애착 | -0.63(1.05) | -0.14(0.79) | -0.26(1.19) | 0.47(0.77) | D>B,C>A,C |
| 정서학대 | 0.26(1.09) | 0.03(0.98) | 0.17(1.03) | -0.28(0.87) | A,B,C>D |
| 신체학대 | 0.43(1.14) | -0.01(1.01) | 0.25(1.05) | -0.33(0.77) | A,B,C>B,D |
| 정서방임 | 0.38(1.03) | 0.14(1.00) | 0.23(1.03) | -0.51(0.82) | A,B,C>D |
| 신체방임 | 0.34(1.07) | -0.04(0.96) | 0.26(1.13) | -0.44(0.85) | A,B,C>B,D |

가족모델별 심리기능 차이

가족모델의 4개 집단 간에 심리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는 표 6과 그림 1을 통해 제시하였다. 다변량 검정 결과, 심리기능에서 가족모델의 4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다[Wilks' =0.882, $F(21, 1370)=2.913$. $p<.001$, 부분 $\eta^2=.041$]. 각 종속변수별 효과 검정 결과, 공감 능

력, 자아탄력성, 자활 의지,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 요인 중 문제 중심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소망적 사고 대처는 일변량 효과가 유의하였다[공감능력 $F(3, 483)=5.742$. $p<.01$; 자아탄력성 $F(3, 483)=5.363$. $p<.01$; 자활 의지 $F(3, 483)=6.545$. $p<.001$; 문제 중심적 대처 $F(3, 483)=7.685$. $p<.001$; 사회적 지지 추구 $F(3, 483)=9.073$. $p<.001$; 소망적 사고 대처 $F(3, 483)=4.385$. $p<.01$]. 정서 완화적 스트레스

표 6. 가족모델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의 다변량분석 결과

| | Wilks' | SS | df | MS | F |
|------------|--------|--------|----|-------|----------|
| 공감능력 | | 16.639 | 3 | 5.546 | 5.742** |
| 스트레스 대처_문제 | | 21.583 | 3 | 7.194 | 7.685*** |
| 스트레스 대처_사회 | | 25.361 | 3 | 8.454 | 9.073*** |
| 스트레스 대처_정서 | 0.882 | 2.521 | 3 | 0.840 | 0.861 |
| 스트레스 대처_소망 | | 12.513 | 3 | 4.171 | 4.385** |
| 자아탄력성 | | 15.379 | 3 | 5.126 | 5.363** |
| 자활의지 | | 18.725 | 3 | 6.242 | 6.545*** |

** $p<.01$, *** $p<.001$

대처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신체 방임 $F(3, 483)=0.861, p=.n.s]$.

집단 간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현재 가족과 연락하고 양친에게 양육된 ‘현재 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 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자활 의지가 높고, 문제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

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와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보다 소망적 사고 대처를 많이 사용하였고, 현재 가족과 연락하지만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 집단보다 공감 능력이 높았으며, 현재 가족과 연락하지 않고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표 7. 가족모델에 따른 심리기능의 평균, 표준편차, 사후분석 결과(N=487)

| | A.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분리 N=108 | B. 현재가족단절 아동기양친양육 N=75 | C.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분리 N=101 | D. 현재가족연결 아동기양친양육 N=203 | 사후검증 |
|------------|-------------------------------|------------------------------|-------------------------------|-------------------------------|-------------|
| | M(SD) | M(SD) | M(SD) | M(SD) | |
| 공감능력 | -0.05(0.98) | -0.08(0.89) | -0.24(1.04) | 0.22(0.99) | A,B,D>A,B,C |
| 스트레스 대처_문제 | -0.18(1.01) | -0.11(0.95) | -0.18(0.98) | 0.26(0.94) | D>A,B,C |
| 스트레스 대처_사회 | -0.24(1.08) | -0.16(0.98) | -0.06(0.87) | 0.29(0.94) | D>A,B,C |
| 스트레스 대처_정서 | 0.09(1.01) | -0.14(1.13) | -0.03(0.86) | 0.03(0.98) | |
| 스트레스 대처_소망 | -0.16(1.02) | -0.02(1.07) | -0.14(0.95) | 0.20(0.99) | D,B>A,B,C |
| 자아탄력성 | -0.23(0.99) | -0.14(0.94) | 0.00(1.06) | 0.20(0.99) | D,C,B>A,B,C |
| 자활의지 | -0.09(0.98) | -0.09(0.91) | -0.24(1.15) | 0.24(0.90) | D>A,B,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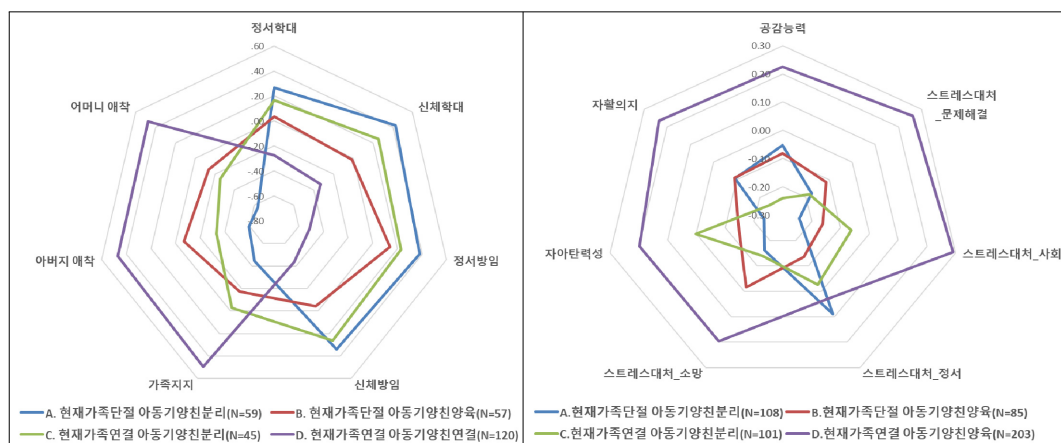


그림 1. 가족모델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양육 구조와 현재 가족 연결 여부에 따라 4개의 가족 모델 집단을 구분하고 집단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양육 구조는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었는지 여부로 구분하였고, 현재 가족 연결 여부는 가족과 동거하거나 연락을 나누는 경우와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끊어진 경우로 구분하였다. 먼저 가족 모델별 최초수감연령, 수감기간, 수감횟수, 범죄유형 등 수감 특성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 모델에 따른 주관적 가족 경험과 심리기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가족 경험은 아동기 학대 경험, 부모에 대한 애착, 지각된 가족의 지지로 측정하였고, 심리기능은 자아탄력성, 자활의지, 공감능력,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모델별 수감 특성을 살펴보면, 양친에게 양육된 출소자보다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은 출소자가 10대, 즉 미성년 시기에 최초로 수감되는 비율이 높고, 수감 기간이 길었다. 또한 현재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는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에 비해 초범의 비율이 높았고, 현재 가족과 연결되어 있고 양친에게 양육된 집단은 5회 이상 수감된 비율이 타 집단들에 비해 낮았다. 즉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면서 구조적으로 보호적인 환경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범죄를 시작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현재 복귀할 가정이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가족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재적응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

결손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 및 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선행 연구(이미리 외, 2015; Elliot et al., 1985), 출소자의 가정 복귀와 가족 지지가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한 선행 연구(이동훈 외, 2016; 류석진 외, 2016)와 맥락적으로 일관된다. 이는 범죄 취약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인 가족 구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의 확산과 반복을 막고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재 가족과 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돕거나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가족모델별 주관적 가족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고 현재도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는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지 않거나 현재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에 비해 가족의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하였고, 부모에 대해 더 큰 애착을 느끼며, 아동기에 덜 학대당했다고 지각하였다. 아동기에 양친과 분리될 경우 학대 및 방임 경험이 많고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양친에게 양육되지 못하는 결손가정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 행동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이은경, 2004)와 일관되며, 유아기에 곁에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는 애착 형성 과정에 대한 Bowlby의 이론(1982)을 지지한다. 또한 현재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의 경우, 지지를 얻을 가족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었지만 현재 가족과 단절된 집단이나 아동기에 양친과 분

리되었으나 현재 가족과는 연결된 집단과 같이 과거 또는 현재 중 어느 한 시점에만 가족과 단절되었던 출소자는 아동기와 현재 모두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경험에 대해 학대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많고 지지와 애착과 같은 긍정적 지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의 접촉이 과거 또는 현재 어느 한 시점에만 단절되었다도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및 관계적 자원이 손상될 수 있고, 특히 아동기에 양육의 결손을 경험한 경우 현재 가족과 연결되었다도 지각된 지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나아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상담 장면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개입을 계획할 때 출소자의 과거 원가족 경험과 현재 가족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가족과 연락을 나누는 출소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가정 내에서 겪은 단절의 경험과 함께 현재 가족과의 관계의 질적 측면을 면밀하게 탐색하여 정서적 소통과 지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에 양친으로부터 양육되지 않거나 양육되었다도 기본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얻지 못할 경우,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고, 안정된 애착 형성에 어려움이 생기며, 부모로부터 학습한 소외와 공격의 상호작용을 가족 및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친밀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따라서 현재 복귀할 가정이나 의지할 가족이 없는 출소자 또는 아동기에 양육의 결손을 경험한 출소자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동기에 겪은 학대 경험과 정서적

결핍을 건강하게 소화함으로써 현재의 중요한 대인관계에서 학대와 결핍의 상호작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대인관계 훈련이 필요하겠다.

가족모델별 심리기능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기에 양친에게 양육되고 현재도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는 아동기에 양친과 분리되었던 출소자에 비해 자활에 대한 의지가 높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공감 능력과 자아탄력성 또한 높았다. 아동기와 현재 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의 심리기능은 아동기와 현재 모두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심리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와 현재 모두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 집단의 공감 능력이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결과는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서 가족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Yoo 등(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공감 능력은 출소자의 아동기 가족 경험에서 학습되어 현재 가족과 관계 맺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 재복귀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하는 대인관계를 친밀하고 안정적으로 맺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소자는 오랜 격리 생활 및 아동기 결손 경험에 따른 가족 관계의 단절로 인해 공감을 나누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재복귀와 관계 회복을 위한 개입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와 현재 모두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가 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사회적 도움과 지지를 추구하며, 자활 의지가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를 비롯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Baharch et al., 2021), 자활 의지가 높았던(송인한 등, 2012) 선행연구 결

과를 지지한다. 또한 아동기와 현재 모두 가족과 연결된 출소자는 아동기부터 줄곧 가족과 단절된 출소자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이는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밝힌 강부자 등(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락을 나눌 가족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출소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대처자원이 되는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 자활에 대한 의지,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보호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은 아동기 최초의 역할모델인 부모를 비롯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반응과 행동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아동기에 모방 학습할 중요한 어른이 부재했거나 현재 이러한 자원을 강화할 지지체계가 빈약하다면 이러한 사회응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양육결손을 경험했거나 현재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출소자의 경우 사회 재적응에 필요한 심리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삶의 기술과 위기에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 타인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출소자의 과거 및 현재의 가족관계와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도울 심리적 자원 간의 관련성을 밝힘으로써 출소자의 재활 및 상담 장면에서 개입의 내용과 방향 설정에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외상적 경험 자체를 되돌리거나 바로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아동기의 가족 경험과 현재의 가족관계가 출소자의 현재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출소자의 가족 경

험에 따라 어떠한 심리적 지원과 훈련이 필요할지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1에 사용된 자료는 분석 2에 사용된 자료보다 결측으로 인해 삭제된 자료가 많았다. 다만 분석 1과 분석 2의 성별, 연령, 수감특성, 학력, 가족모델 집단별 n수 등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결측으로 인한 표집의 편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1의 종속변수 중 특히 가족지지, 부애착, 모애착의 응답률이 낮았는데, 현재 가족 또는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지각이 응답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 지원을 받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출소자 집단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출소자의 다양한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대부분 남성 출소자의 자기보고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 출소자의 비중이 매우 적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숙식 지원을 받는 출소자의 전체 성비를 살펴보면, 자료가 수집되던 2014년의 숙식지원 종료자는 남성 1,532명 여성 107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약 7%였고, 2021년의 숙식지원 종료자 중 여성의 비율도 5%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성비는 모집단의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중 남성 출소자의 비율이 매우 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 출소자의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

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출소자에게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출소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강수운, 이동훈 (2019). 출소자가 인식한 사회적 지지와 자활의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수감횟수 및 최초범죄연령별 다집단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749-777.
- 강호성 (2018).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 *보호관찰*, 18(1), 209-252.
- 공정식, 권준성 (2019). 출소자의 가족관계가 직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자기 낙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5(3), 11-26.
- 김경아, 이창배, 공정식 (2020). 출소자의 심리특성과 지역사회 적응. *시큐리티연구*, 62, 113-134.
- 김기환 (2019). 출소자 가족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가족희망사업을 중심으로 -. *교정담론*, 13(3), 319-357.
- 김미현, 이동훈, 강수운 (2021).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 부모애착, 자아탄력성, 수감횟수간의 관계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233-247.
- 김수희 (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2012). 음악치료사의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정, 함경애, 이동훈 (2014). 실직자의 가족탄력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87-804.
- 남재성 (2008).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Micro-Credit의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40, 55-81.
- 류석진, 노지애, 이동훈, 박성현, 오세준, 조현주 (2016). 출소자 가정복귀의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질적연구. *재활심리연구*, 23(2), 469-490.
- 박경숙, 박능후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여성정책과*
- 박지언, 이은희 (2008).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69-389.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8). 범죄백서.
<https://www.ioj.go.kr/homepage/information/DataAction.do?method=view> 에서 검색.
- 서지호, 장혜인 (2021). 아동기 애착불안과 애

- 착취에 대한 지각이 성인진입기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우울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1), 1-19.
- 서현정, 정하영, 이덕희, 이동훈 (2020). 청소년 자녀를 둔 남성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이 아버지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배우자 지지와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3), 95-117.
- 송인한, 박장호, 김리자 (2012).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457-474.
- 송하성 (2017). 수형자의 지역사회적응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원*, 24(1), 1-42.
- 심은정, 조영주, 박단비 (2019). 성인애착과 관계만족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6), 71-92.
- 오수성, 신현균 (2008). 5·18 피해자들의 생활스트레스, 대처방식,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외상후 스트레스, 심리건강 간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595-611.
- 윤기원, 이동훈 (2017). 출소자의 부모애착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공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숙식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65-785.
- 이동훈, 강수운, 지승희 (2016). 수감자의 출소 후 가족복귀 경험에 관한 교정기관 상담자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4), 595-622.
- 이동훈, 방기연 (2014). 낮설게 다시 시작하기: 생활관 거주 출소자의 사회복귀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5(6), 2645-2666.
- 이동훈, 조은정, 양순정, 양하나 (2017). 교정전문가 및 교정상담자가 인식하는 출소자의 사회재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7), 303-319.
- 이래혁, 김승아, 노혜진 (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심리 사회 특성이 정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자활후원기관협회 자활사업논문공모전 자료집, pp. 6-39.
- 이미리, 박주희, 정현숙 (2015). 양친, 한부, 한모가족 청소년의 적응과 가족환경특성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3(4), 147-160.
- 이유경 (2006).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 윤옥경 (2006). 출소자의 사회적 차별에 관한 연구.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이은경 (2004). 결손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화교육논총*, 14, 79-93.
- 장희숙 (2010). 재범과 정신건강 부적응의 위험요인 - 성인 남성 수형자와 가정폭력사범의 성장기 외상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46, 113-145.
- 정진수, 조윤오, 이원복, 김미숙, 박민선, 박혜련, 이수정 (2011).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 (II).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85.
- 정하영, 김시형, 권옥현, 이동훈 (2020). 출소자

- 의 아동기 학대외상, 자아탄력성, 적극적/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초범/재범여부와 주거/숙식 지원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469-490.
- 정희진 (2008). 여성의 복합외상경험이 자기역량의 변화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철 (2008). 노인범죄의 동향과 심리. 한국범죄심리연구, 4(2), 227-257.
- 조희원, 도광조 (2014). 출소자의 취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복지연구, 32, 51-80.
- 최영신 (2009). 우리나라 수형자 사회복귀과정의 단계와 지원 방안. 형사정책연구, 997-101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16). 2014년 12월분 보호실적 현황.
https://koreha.or.kr/board/list.do?MN1=3&MN2=18&MN3=49&MN=49&BRD_ID=S_Performance 에서 검색.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022). 2021년도 12월분 보호실적 현황.
https://koreha.or.kr/board/list.do?MN1=3&MN2=18&MN3=49&MN=49&BRD_ID=S_Performance 에서 검색.
- 한순옥 (2014). 갇혀있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자립의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3, 55-88.
- 허재홍, 이찬중 (2010). 공감지수(EQ) 척도의 심리측정 속성. 인문과학연구, 24, 183-200.
- 현문정, 공정식, 김정현 (2019). 출소자의 가족 믿음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존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범죄학, 13(1), 5-26.
- Alexis S., & Brandi W. (2017). Predictors of family support and well-being among black and latina/o sexual minorities, *Journal of GLBT Family Studies*, 13(4), 357-379.
- Annerbäck, E. M., Sahlqvist, L., Svedin, C. G., Wingren, G., & Gustafsson P. A. (2012). Child physical abuse and concurrence of other types of child abuse in Sweden—Associations with health and risk behaviors. *Child abuse & neglect*, 36(7-8), 585-595.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Baglivio, M. T., Wolff, K. T. Piquero, A. R., & Epps, N.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ACE) and juvenile offending trajectories in a juvenile offender sampl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3), 229-241.
- Baglivio, M. T., Wolff, K. T., Piquero, A. R., Bilchik, S., Jackowski, K., Greenwald, M. A., & Epps, N. (2016). Maltreatment, child welfare,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deep-end crossover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4), 625-654.
- Bahareh, F., Khadijeh N., Akram M., Hossein N., Elnaz S. P., Fatemeh G., Majid H., & Najmeh B. (2021).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in COVID-19 survivors. *Iranian Journal of Psychiatry & Behavioral Sciences*, 15(4):e112635.
- Barker, J. C., Herdt, G., & DeVries, B. (2006). Social support in the lives of lesbians and gay

- men at midlife and later.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3(2), 1-23.
- Baron-Cohen, S., & Wheelwright, S. (2004).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 163-175.
- Bernstein, D. P.,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The Psychological Corporation.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wlby, J. (1982).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amp, B. H., & Thyer, B. A. (1993). Treatment of adolescent sex offenders: A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s*, 17, 191-206.
- Cicchetti, D., Toth, S. L., & Lynch, M. (1995). Bowlby's dream comes full circle. In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pp. 1-75). Springer US.
- Chapman, D. P., Whitfield, C. L., Felitti, V. J., Dube, S. R., Edwards, V. J., & Anda, R. F. (200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risk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ulthood.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2(2), 217-225.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oll, B., & Lyon, M. A. (1998). Risk and resilience: Implications for the delivery of educational and mental health services in schools. *School Psychology Review*, 27(3), 348-363.
- Efta-Breitbach, J., & Freeman, K. A. (2004). Recidivism and resilience in juvenile sexual offenders: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3(3-4), 257-279.
- Elliott, D.S., Ageton, S.S., & Huizinga, D.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Vol. 27, pp. 91-92). Beverly Hills, CA: Sage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Grella, C. E., Stein, J. A., & Greenwell, L. (2005). Associations among childhood trauma,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adverse adult outcomes in substance-abusing women offender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9(1), 43-53.
- Jolliffe, D., & Farrington, D. P. (2004). Empathy and offend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9(5), 441-476.
- Karpel, M. (1986). *Family resources: The hidden partner in family therapy*. New York, NY: Guilford.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aible, D. J., Carlo, G., & Roesch, S. C. (2004).

- Pathways to self-esteem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u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716.
- Lindsey, S. A., & Claire S. (2020). The influence of family cohesion and relational maintenance strategies on stress in first semester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Quarterly*, 68(4), 457-471.
- Lyn, T. S., & Burton, D. L. (2004). Adult attachment and sexual offender statu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4(2), 150-159.
- Marshall, W. L. (1989). Intimacy, loneliness and sexual offender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7(5), 491-504.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24-344.
- Morani, N. M., Wikoff, N., Linhorst, D. M., & Bratton, S. (2011). A description of the self-identified needs, service expenditures, and social outcomes of participants of a prisoner-reentry program. *Prison Journal*, 91(3), 347-365.
- Mossholder, K. W. (1980).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goal setting on intrinsic motivation: A laboratory experimen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5, 202-210.
- Pearl, N., Ashcraft, R. G., & Geis, K. A. (2009). Predicting juvenile recidivism using the San Diego regional resiliency check-up. *Fed. Probation*, 73, 46-49.
- Raja, S.,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471-485.
- Sato, M., Okada, T., Morikawa, M., Nakamura, Y., Yamauchi, A., Ando, M., & Ozaki, N. (2021). Validation and factor analysis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Japanese pregnant women. *Scientific Reports*, 11(13759), 1-10.
- Skinner, E. A., & Zimmer-Gembeck, M. J. (2007). The development of cop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119-144.
- Smith, W. R., & Monastersky, C. (1986). Assessing juvenile sexual offenders' risk for reoffend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3(2), 115-140.
- Stinnett, N., & De 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MA: Brown.
- Trovillion, A. (1998). *Maintaining family contact when a family member goes to prison*. Florida House of Representatives Justice Council.
- Yoo, H., Feng, X., & Day, R. D. (2013). Adolescents'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family context: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1858-1872.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원 고 접 수 일 : 2022. 05. 03
수정원고접수일 : 2022. 07. 18
게 재 결 정 일 : 2022. 08. 04

Differences in Subjective Family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Functions by Childhood and Current Family Connections among Former Prisoners

Mo Hyun Yang

Hyeon Park

Dong Hu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Doctoral student

Master student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subjective family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function according to whether former prisoners were raised by parents and are currently connected with their family. Subjective family experiences included experiences of family support, parent attachment, and childhood abuse. Psychological functions included empathy, ego-resilience, will for self sufficiency, and stress coping strategy. According to MANOVA results, former prisoners who are currently connected to their family and were raised by parents have higher psychological functions, less experience of childhood abuse, and more parent attachment than those who have lost contact with their family or were not raised by par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revealed that former prisoners' connection with their family in the present and in childhood is related to various psychological resources in addition to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ir family.

Key words : former prisoner, family connections, MANOVA, psychological function, subjective family experience